

경기도교육청, '전기·온수 통합 활용모델' 구축

학교 급식실 온수 사용 연제로 가스요금 연간 최대 43% 절감 효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 설치된 연료 전지를 단순한 의무 설비가 아닌 학교 운영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전환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연료전지를 급식실 온수 사용 유형과 연계해 활용하는 '전기·온수 통합 활용모델'을 구축하고 신축학교를 중심으로 적용한다.

연료전지는 도시가스를 이용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신에너지 설비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전기 생산 위주로 운영하고 발생 온수는 활용하지 못하면서 설비 가동률 저하와 경제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특정 시간대(11시~15시)에 집중되는 학교 급식실의 온수 사용 유형에 착안해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온수를 급식실 온수에 우선 활용하는 표준 운영모형을 마련했다.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40℃ 온수를

먼저 온수탱크에 저장한 뒤 가스온수기에서 60℃로 재가열해 활용하는 '병행운전 모델'을 적용하면 연간 가스요금을 약 22~43%(약 300만~350만 원) 수준으로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도내 신축 예정(2027년~2029년) 초·중·고 24교에 적용하면 연간 6,0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2029년 이후 신축학교 적용 시 학교 운영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활용해 전기와 온수 생산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축적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해 학교 연료전지 운전 효율을 꾸준히 개선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시설의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송민수 기자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 캠프그리브스서 첫 회의

경기도, 캠프그리브스에서 첫 위원회 열고 DMZ 정책 방향 논의

경기도는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제1회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 회의를 열고, DMZ 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는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DMZ 보존과 활성화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생태·환경·관광 및 DMZ 분야 전문가, 시군 담당 부서장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첫 회의는 위원들이 DMZ 현장의 의미와 가치를 직접 체감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개최됐다.

캠프그리브스는 과거 미군기지로 사용되던 공간으로, 현재는 DMZ의 역사·생태·문화적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점 공간이다.

회의에서는 경기도 DMZ 일원 발전종합계획(2021~2025)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수립할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그동안 DMZ 일원을 중



심으로 관광거점 조성, 생태환경 보전, 콘텐츠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DMZ의 역사·생태·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캠프그리브스, 평화누리길, 임진각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DMZ 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DMZ의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 확대해 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DMZ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는 한편, 지역 연계와 실효성을 함께 고려한 사업을

송민수 기자

GH, '고덕 자연엔 하우스D' 무순위 모집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주자 추천 및 당첨자 발표는 청약 당일 현장에서 이뤄지며, 최종 계약은 서류 적격자에 한해 3월 27일 체결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고덕지구는 뛰어난 생활 인프라와 교통망을 자랑한다. 코스트코, CGV, 이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서정리역이 도보권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특히 인근 평택지역을 통해 SRT는 물론 향후 KTX(예정) 및 GTX-A-C 노선(예정)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광역 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우수한 교육 환경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예정)를 비롯해 유치원, 민세중, 송탄고 등이 위치하며, 평택시 중앙도서관과 국제학교 조성도 계획되어 있어 자녀를 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GH는 향후 안양 관양도 분양주택, 광고 A17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다양한 고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송민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대보건설과 민간참여 공공분양사업으로 공급하는 '고덕 자연엔 하우스D(자연&hausD)'의 잔여 가구 무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블록에 위치한 '고덕 자연엔 하우스D'는 지하 1층-지상 23층, 7개 동, 총 517가구(84㎡ 328, 98㎡ 189)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98㎡ 잔여분 45가구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5억 6,000만원~6억 2,900만원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높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청약 접수는 3월 21일 고덕 자연엔 하우스D 모델하우스에서 방문 접수

파주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박차'

'수도권형 지산지소 전력체계'를 제시하며 분산에너지 정책 논의를 이어온 파주시가 이번에는 실행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파주시는 지난 18일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파주시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 기반에너지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입이 예정된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파주시 여건에 맞는 지역 전력체계를 설계해 시민에게 합리적인 전기요금을 제공하기 위한 '알뜰전기요금제' 기반 정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도권은 전력 소비가 집중된 지역임에도 전력 생산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장거리 송전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활용하는 수도권형 지산지소 전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분산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파주시의 분산에너지 현황과 전력 수요 구조를 분석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알뜰전기요금제 제공을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도입 전략을 검토하고, 경제자유구역·평화경제특구·성장거점 개발 등 도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개별 연계형 에너지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화성시, 병점 생숙 134호, 오피스텔 변경 고시

화성시는 지난 18일 병점구 병점북합타운 상업6 블록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 허용 용도를 추가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입안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공동위원회 회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쳤다. 특히 용도변경 과정에서 사전협상

제도를 활용해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 기여금을 확보했다. 시는 기여금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통학로를 개선하고 간이도서관 등 주민 공동 시설도 만든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용도변경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수분양자의 거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바탕으로 민생 현안 해결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행정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현장점검 및 안전 문화 확산 나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3월 17일부터 '2026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개선지도, 안전 계몽 운동 등을 실시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리시는 올해 노동안전지킴이 2명을 채용해 2인 1조로 운영하며, 지역 내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개선하도록 안내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 방문 시 산업안전 관련 지원사업 안내와 홍보물 배포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



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월 '노동안전의 날' 합동점검 및 계몽 운동을 추진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산업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쓸 예정이다.

송민수 기자

주민이 빛은 예술의 향연... 하남 '2026 주민자치 경연' 대성황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18일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검단홀에서 '2026년 하남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주민들이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화합하는 생활문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남창수 주민자치회의 회 회장을 포함해 13개 동 선수단과 응원단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공연 시작 전부터 객석은 형형색색의 응원 도구로 물들었다. 주민들은 저마다 손에 든 응원봉을 힘차게 흔들고 반짝이는 LED 머리띠를 착용한 채 설레는 표정으로 무대를 기다렸다.

자신이 거주하는 동의 참가 선수단이 무대 조명을 받는 순간, 장내는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 소리로 뒤덮였다. "우리 동네 최고다!"라는 외침과 함께 리듬에 맞춰 질서 정연하게 펼쳐지는 응원전은 경연 못지않은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하며 현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무대 위에서는 덕평2동의 우아한 한국무용 선율이 무대를 감싸고, 감복동의 정겨운 하모니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감일동, 위례동, 미사3동, 덕평1동의 통기타 선율은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천현동, 덕평3동, 신장1동의 박력 넘치는 라인댄스는 무대를 꽉 채웠으며, 신장2동의 실버댄스와 미사2동의 다이어트댄스, 초이동의 댄스로빅은 관객들의 어깨를 들쭉이게 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객석의 탄성을 자아낸 미사1동 '영화 무용단' 팀은

백경현 구리시장은 "산업재해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현장 중심의 점검과 안전 문화 확산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아름다운 나라' 곡에 맞춰 단아하고 기품 있는 부채춤을 선보였다. 부채가 펼쳐질 때마다 피어나는 우아한 선과 절제된 움직임은 한국의 미를 극대화하며 무대를 화려하게 수놓았고, 관객들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경연 결과 최우수상은 미사1동(영화 무용단)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미사2동(Y.M CREW팀), 장려상은 신장2동(은빛 청춘들팀)과 미사3동(미생기타팀)에 각각 돌아갔다.

송민수 기자

과천시, 전문 심리상담

지원...최대 8회 바우처

과천시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문제를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해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민으로, 올해부터는 사회재난 피해자 등이 추가되어 범위가 확대됐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정신 의료기관에서 상담이 필요한 시민 ▲국가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등도 포함한다.

주요 지원 항목은 상담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문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한다. 최대 8회 전문 심리 상담이 지원되며 관내 8개 등록기관 이용이 가능하다.

과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문턱 낮은 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내 노후 공원

6개소 리모델링 사업 추진

남양주시는 관내 노후 도시공원 6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1개소를 시민참여 시범공원으로 지정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 공원 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공원 시설을 정비해 안전성을 높이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사업 대상은 어린이공원 4개소와 근린공원 2개소다. 대상지는 사대읍 △덕소5호 △창현4호 △호평2-12호 어린이공원과 △가운중앙 △도곡 근린공원 등 총 6개소다.

아울러 시는 이 중 1개소를 시민참여 시범공원으로 지정해 주민이 공원 조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원별 특성과 이용객들의 현장 의견을 세심히 반영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원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투

트랙 지원... "활성화·특성화"

여주시가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주시는 지난 18일 평생학습관에서 '2026년 제1차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열고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 투트랙 전략을 설명했다. 19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은 전역 시비로, 장애인 평생교육도시 특성화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투입 예산은 국비 3800만원을 포함해 1억8800만원이다.

먼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은 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해 정서·문화·직업·사회 전반에 걸친 통합형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요리경연대회, 원예치료, 연극, 문화예술 및 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인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도시 특성화 사업은 여주시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직무형 평생교육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화훼·텃밭 기반 원예 교육, 디지털 및 인공지능 교육, 직업체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사회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여주시는 농업과 문화예술, 지역 축제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 치유농업 기반 정서지원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참여형 교육, 직업연계 실천형 교육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시설, 직업재활기관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민관 협력형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이후에도 직업과 사회활동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를 만든다.